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I) -고대를 중심으로-

金 珠 愛

진주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ncient Underclothes

Ju-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Chin-Ju Junior College

目 次

| | |
|--------------------|---------------|
| Abstract | 3. 크리트 |
| I. 서 론 | 4. 그리스 |
| II. 속옷의 기능 | 5. 에트루리아 및 로마 |
| III. 고대 속옷의 특징과 변천 | IV. 결 론 |
| 1. 이집트 | 참고문헌 |
| 2. 메소포타미아 | |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ncient underclothes. Underclothing includes all such articles, worn by either sex, as were completely or mainly concealed from the spectator by the external costume. Functions of underclothes are follow : to protect the body from cold, to support the shape of the costume, to cleanliness, to erotic use of underclothes and as a method of class distinction.

Linen is the oldest as materials and cotton came into general use after the Restoration of 1660. We must suppose that woollen petticoat was at least as old as the Middle Ages and silk was rarely used until late in Victorian times. Until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underclothes were necessarily hand-made, and the absence of fit was noticeable until the introduction of man's drawers, fitting the leg, at the close of the eighteen century. Strings and ribbons were the fastenings for underclothes until the middle of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they were replaced by buttons.

One outstanding example of the first type of figures is a Babylonian girl of about 3000 BC from Sumeria who wears that today would immediately be described as briefs. Female statues show no trace of anything being worn under the chiton, but there is literary evidenced that the

Greeks. A band of linen or kid was bound round the waist and lower torso to shape and control it. It was known as the Zone or girdle. The apodesmos, meaning a band, breast band, occurs in a fragment of Aristophanes.

A Roman mosaic shows female athletes wearing a bikini-briefs and bra in the fourth century AD. A similar band, called the mastodeton, or breast band, was also worn round the bust, apparently to flatten or minimise it, as in the 1920s, and not, to stress its curves. In Rome, too, women sometimes wore bands of material round the hips and bust-a cestus or girdle is referred to by the poet Martial and seems to have been similar to the zone, but wider, and the strophium, or breast band, is mentioned by Cicero.

I. 서 론

속옷은 겉옷에 의하여 완전히 혹은 거의 가리워지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의복을 착용할 때에는 上·下와 內·外로 구분하며, 여기서 上·下의 구분은 상체의복을 上衣, 하체의복을 下衣라고 하며, 內·외의 구분은 외측에 착용하는 의복을 겉옷(上着), 내측에 착용하는 의복을 속옷(下着)이라 한다. 또한 제일 바깥쪽 의복을 外着, 제일 안쪽 의복을 肌着, 중간 의복을 中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

속옷이란 피부에 접하여 있고 다른 의상의 속에 착용되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 장식적, 심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원초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속옷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옷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으며, 완벽한 의상이란 겉옷과 속옷의 조화이며, 이것은 흔히 인간 신체의 모양과는 달리 기묘한 모양을 만들어내므로 속옷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속옷은 추위로 부터 신체보호, 의상형태의 유지, 청결성, 선정적(煽情的)인 용도, 계층구별 등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²⁾. 속옷이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옷의 연구는 겉옷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대에 들어 겉옷 못지 않게 속옷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복식 산업계에서도 속옷 산업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질에 따른 속옷의 기능성을 고려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속옷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史的 고찰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옷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속옷의 기능과 고대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리트, 그리이스, 에트투리아 및 로마 국가를 중심으로 속옷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하여 속옷의 기원을 밝히고 고대 속옷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속옷의 기능

속옷은 1)추위로 부터 신체보호, 2)의상형태의 유지, 3)청결성, 4)선정적인 용도, 5)계층구별 등의 기능을 가진다.

1. 속옷의 착용 목적

1) 추위로 부터 신체보호

여성은 비활동적이며, 대개 겉옷이 얇은 재료로 되어 있으므로 남성보다 많은 속옷을 입어왔고 보온을 위해 의복을 껴입기를 좋아하였다. 19세기까지 남성은 다리 부분에 의복을 착용한 반면에 여성은 스커트 속의 다리 부위에는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남성은 상체의 두툼한 겉모습을 위해 의복을 많이 껴입었으나 여성은 반대였다. 여성 속옷의 주된 부분은 여성 신체의 아랫부분을 덮어왔고, 모직으로 된 섬유가 린넨이나 면보다 따뜻하지만 여성은 대개 하체에 린넨, 면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남성은 다리를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해 여성과는 반대의 경향이었다. 보온

1) 小川安朗, 服飾交本, 光生館, 1990, p. 7.

2) Cunningham,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 14.

을 위한 속옷의 양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이 경향은 세계 제1차대전 이후로 상당히 감소하였다³⁾.

2) 의상형태의 유지

여성복은 남성복보다 모양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것은 주로 속옷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의 속옷은 남성의 속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진기한 모양은 그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켜서 속옷의 구조에 인공적인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3) 청결함

속옷은 겉옷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로부터 분비물을 흡수하여 신체를 청결하게 하였다. 신체에 대한 청결함은 18세기 전까지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엘리자베스시대에 의복재료가 다양해지고 18세기 말엽의 Macaronis⁴⁾(화려하고 지나치게 옷치레를 한 영국의 멋쟁이에 대한 애칭)가 혁신적으로 시작한 신체의 위생은 빅토리아시대에 계층을 구별하는 상징으로 되어 속옷의 빈번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1차대전까지 상류층에서는 의복이 직접 피부에 밀착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였으나 이러한 개념이 점차 약화되면서 오늘날 피부에 직접 밀착되게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4) 선정적인 용도

인체의 性的인 부위를 상징화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의복이 이용되었다. 속옷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의복을 벗은 것의 상징이며 선정적인 태도이다⁵⁾. 특별한 속옷과 함께 선정주의는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페티코트란 용어는 성에 대한 동의어로 제한되면서 여성매력의 상징으로 로맨틱하게 여겨졌다. 성적인 상징물(화살, 하트 등) 또는 기이한 색상으로 디자인 된 속옷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⁶⁾. 선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여성의 속옷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콜셋이었으며 콜셋은 여성의 허리를 가늘게 하고 가슴을 강조하여 성적 매력을 나타냈으며 남성도 콜셋으로 허리를 가늘게 함으로써 남성의 넓은 어깨선이 강조되어 남성미를 나타내었다. 지난 6세기 동안 여성들의 육체적 매력을 위해서 버슬(bustle), 인조가슴, 후프(hoop)와 현대의 브래지어(brassiere)와 같은 인공적인 기구가 고안되었다.

5) 계층구별

큰 공동사회는 그들의 경제적 기초를 둔 여러 집단으로 분리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계층구별은 부에 의해서 구분되지만 기호에 대한 표현으로도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의복형태는 문화의 영향으로 부에 대한 노출과 선정적인 면이 억제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계층구별을 위해 속옷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목적을 위해 현저하게 셔츠를 사용해왔다. Tudors왕조 이래로 저킨(jerkin)의 슬래쉬(slash)와 18세기때 웨이스트코트(waistcoat)의 상단부를 잠그지 않아서 셔츠(shirt)가 보이게 한 것 등이다. 땀뻑하게 풀을 먹이거나 프릴(frill)을 한 의상에 의해서 육체노동자와 신사로 구별지어졌으며 상류층의 상징으로써 깨끗한 흰 셔츠 앞부분이 현저하게 보여지기도 하였다.

2. 재 료

속옷의 재료로써는 린넨(linen)이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 사용되었으며, 속옷의 재료는 Beau Brummel(19세기의 유명한 멋쟁이이고 패션권위자, 이 용어는 옷치레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됨)⁷⁾ 시대 부터 계층을 구별하는데 이용되었다. 빅토리아왕조시대에는 린넨이란 단어 자체가 신사의 속옷과 동의어였으며 綿은 린넨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1660년대 이후에는 일반화되었다. 중세에 毛로 된 페티코트(petticoat)가 나타

3)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14.

4) Picken, Mary, Brooks, *The Fashion Dictionary*, Funk & Wagnalls, 1987, p. 238.

5)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p. 5.

6)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15.

7) Picken, Mary, Brooks, 앞의 책, p. 17.

났으나 남성은 습관적으로 18세기 말엽까지 모로 된 속옷을 착용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보온을 위해서 16세기 부터 남성은 모로 된 웨이스트코트를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중세에는 가죽도 이용되었다⁸⁾. 빅토리아왕조 말경까지 絹은 상류층에만 사용되었다.

3. 구성 및 착용방법

19세기 중엽까지 속옷은 손으로 만들었으며 18세기 말엽에 다리에 밀착된 남성용 드로워즈(drawers)의 도입때까지 몸에 밀착되지 않았다. 피부에 밀착된 의상이 보온성이 많다는 사실은 빅토리아시대에 직조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오늘날 그 효율성은 여성들에 의해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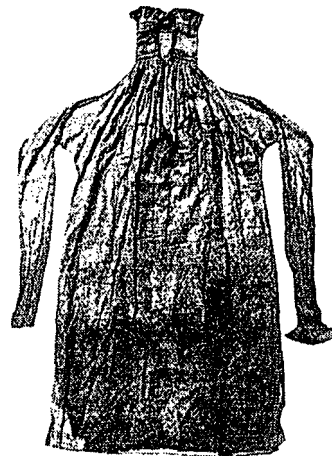
속옷의 조임은 보통 끈이나 리본이었으며 17세기 중엽에 단추로 대체되었다. 최초의 단추형태인 하이-탑(high-top)은 양의 뿔로 된 둥근형에 린넨을 덮어서 만든 것으로 1649년에 Charles 1세가 착용한 絹조끼에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19세기 까지 사용되었다. 하이-탑은 18세기 초기부터 청동으로 된 도셋스레드(Dorset thread) 단추로 대체되었으며 1930년경까지 계속되었다.⁹⁾ 1840년경에는 평평한 무명단추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속옷의 단추는 시대에 따라 분류되지만 의상보다 빨리 혹은 늦게 대체되기도 하였다. 남성 셔츠의 장식단추는 풀먹이기가 도입되었을때 보통단추로 바뀌었다. 19세기 중엽에 목을 잡그는 장식단추가 나타났으나, 1860년대까지 뒷부분에 보통단추가 달린 셔츠가 계속 착용되었으며 커프스의 단추구멍은 19세기에 나타났다. 속옷에는 훅단추(hook and eye)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Pieter Brueghel의 'The Old Shepherd'에서는 턱백칼라(turned-back collar)의 안쪽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1)^{10,11)} 가장자리가 러플(ruffle)된 칼라(collar)에서는 훅단추가 감추어진 채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 2).¹²⁾



<그림 1> 훅단추, 1567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18)

(*The Development of Costume*, p. 19)



<그림 2> Sture shirt, 1567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61)

8)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18.

9)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19.

10)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18.

11) Tarrant, Naomi, *The Development of Costume*, Routledge, 1996, p. 18.

12)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20.

Ⅲ. 고대 속옷의 변천과 특징

1. 이집트

1) 사회·문화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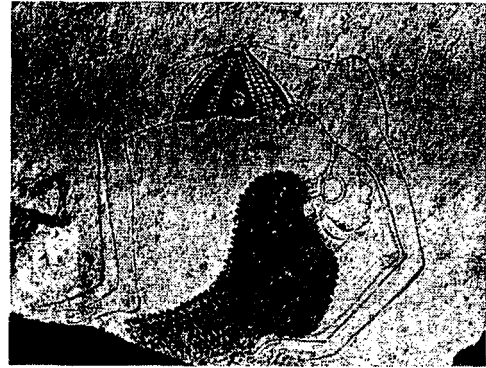
기원전 4000년경 나일강가에 이집트 문명이 생겼으며 고대 이집트는 크게 3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파라오시대(BC 3100년경~BC 332년), 그리스·로마시대(BC 332년~AD 640년) 및 이슬람시대(AD 640년 이후)이며, 고대 이집트라 불리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파라오시대이다.¹³⁾

기원전 3400년경에 2개의 국가로 통일되었는데 북부는 나일강 델타지대의 여러 국가가 통합된 下이집트이고, 남부는 남쪽의 제1폭포 부근까지의 여러 국가가 통합된 上이집트이다. 기원전 3100년경 下이집트는 上이집트의 국왕 메네스에 의해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집트는 유사사대로 들어가 파라오시대가 되었다. 고왕국시대는 국가로써 가장 충실한 시기로 피라미드시대 또는 멘피스에 수도가 있으므로 멘피스시대라고 하였다. 중왕국시대는 제1테베시대, 신왕국시대는 제2테베시대라고도 불리웠다. 신왕국시대의 제18, 제19왕조는 이집트문화의 최성기에 해당하며 고대 이집트는 제27왕조 때에 페르시아의 한 주가 되고,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어 그리스에게 멸망 당하였다. 고왕국 시대에는 피라미드가 건조되고 중왕국 시대에는 정치력이 강화되어 상업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으며, 신왕국 시기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국력이 융성하였다. 이집트의 사회구조는 왕인 파라오와 신관, 귀족, 관리, 군인, 직인, 농민, 노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농경을 주로 한 생활은 이들을 강하게 지배하는 자연현상과 천체에 깊은 관심을 가져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고 태양력, 기하학 등이 발달하였다.

2) 속옷의 종류

이집트는 기후가 따뜻하고 건조하여 개방적인 의복형태의 발달을 가져왔다.¹⁴⁾ 고왕국·중왕국

¹⁵⁾시대에는 몸에 천을 둘러입는 단순한 형태가 지속되었으며, 신왕국 시대에는 동방의 문화가 도입되어 복식의 종류가 늘어나고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다. 고대 이집트에서 의복을 이용하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으며, 무희, 약사 등과 같은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나체거나 유의(紐衣)를 착용하였고(그림 3, 4)¹⁶⁾ 계급이 높을수록 의복은 정교하였다.



<그림 3> 유의. 무희
(Women in Ancient Egypt, p. 79)



<그림 4> 유의. 약사
(Women in Ancient Egypt, p. 51)

13) 青木英夫, 西洋男子服 流行史, 源流社, 1994,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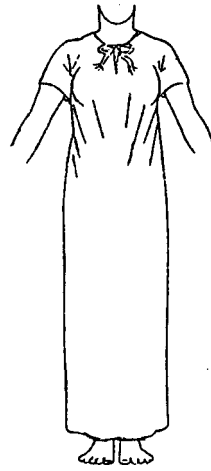
14) 車河淳, 西洋史概論, 探求堂, 1984, p. 24.

15) 중왕국: BC 2065~BC 1580년.

16) 파울 프리사우어, 이윤기譯, 世界風俗社 上, 1995, p. 78.

일반적으로 요의(腰衣, loin-cloth)나 腰布가 길어져 생긴 튜닉을 이용하였다. 튜닉의 길이, 색, 주름잡는 법은 계급 표시였으며 특권층은 튜닉의 아래에 요포를 두르는 것이 허용되어, 여기서 속옷으로 인정되는 언더스커트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위생적이고 방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졌다. 상류층의 남성은 튜닉 속에 요의나 언더스커트를 입어 이것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그림 5).¹⁷⁾

튜닉은 직사각형의 형질을 어깨선에서 접어 목둘레선을 내고, 양쪽 진동선 밑에서부터 단까지 꽤맨 T자형 의상이다(그림 6). 블라우스처럼 상의로 입혀진 짧고 넓은 튜닉은 왕족이 축제 때 입었으며 이 의상은 신왕국의 투탄카멘 왕조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였다.¹⁸⁾ A.D 1세기에 착용된 달마티카(dalmatica)는 이집트의 짧고 넓은 튜닉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투탄카멘이 어렸을 때 입었던 튜닉은 가느다란 핀터(pin-tuck)이 손바느질로 디자인 되어있다.¹⁹⁾



<그림 6> 튜닉착용법
(고대이집트 문명, p. 129)

상류층의 여성은 튜닉을 2배 겹쳐 입었으며 이중의 한매가 속옷의 기초가 되었다. 또 바치는 튜닉이 유행하여(그림 5, 7) 두매의 튜닉이 다 비치거나 한매만 비치기도 하였다.²⁰⁾ 이 경우 비치는



<그림 5> 요의
(西洋服裝史, p. 13)



<그림 7> 두명한 튜닉
(女の下着の歴史, p. 14)

17) 村上憲司, 西洋服裝史, 創元社, 1986, p. 13.
18) 鄭興淑, 서양복식문화사, 敎文社, 1997, p. 19.
19) Editions API, 아문, 고대 이집트 문명, p. 129.
20) 深井晃子 譯, 女の下着の歴史, 文化出版局, 10, 1981,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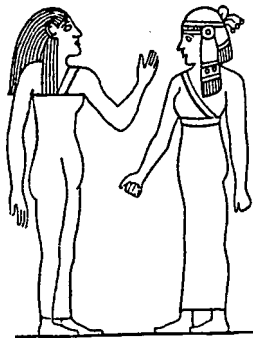
것은 외측의 튜닉이었으며, 비쳐보이기 위해 얇은 麻나 땅²¹⁾을 이용하였다.

여성이 착용한 어깨끈이 달린 긴 스커트로 된 튜닉형은 쉬스스커트(sheath skirt)라 칭해지며, 직사각형의 천을 옆으로 접어 한쪽 끝을 봉합하고 어깨끈을 단 형태이다. 스커트 허리를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로 하며 유방이 가리워지거나 노출되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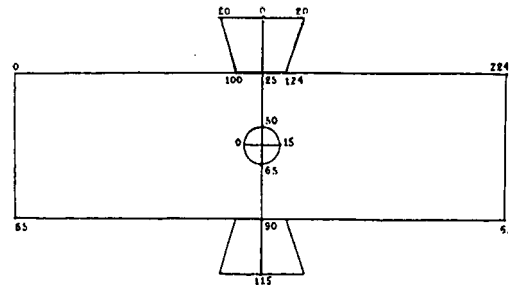
<그림 9>는 이집트 Kha무덤의 것을 기초로한 소매없는 튜닉형의 도해이다. 직사각형의 반투명한 린넨의 가운데에 목둘레선을 내고 양옆선

을 앞으로 접은 후 허리띠를 매거나 핀을 꽂아압는 칼라시리스(kalasisiris)를 폭이 좁은 경우에는 튜닉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²²⁾ 칼라시리스는 소매가 있는 경우나(그림 10) 없는 경우가 있었다(그림 11, 12).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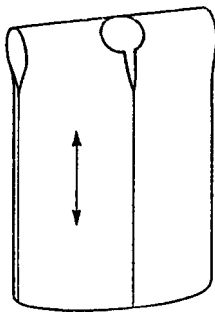
이집트 여성은 속옷 없이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속옷을 착용할 때는 삼각형의 로인크로스를 계속 유지하였다.²⁴⁾ 또한 여성은 다른 의상보다도 속옷을 자주 세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²⁵⁾ 노예는 슈메르의 여성 팬티보다 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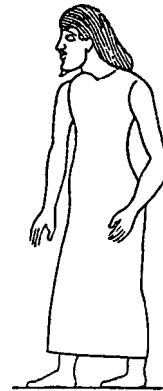
<그림 8> 튜닉
(A History of Costume, p. 54)



<그림 10> 소매있는 칼라시리스 구성도
(A History of Costume,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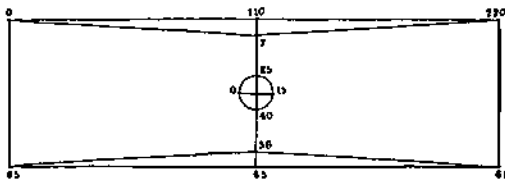


<그림 9> 소매없는 튜닉 도식도
(The Development of Costume, p. 31)



<그림 11> 소매없는 칼라시리스
(A History of Costume, p. 54)

21) 파울 프리샤우어, 앞의 책, p. 80.
22) 申尚玉, 西洋服飾社, 1995, p. 19.
23) Ko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p. 54.
24) Watterson, Barbara, Women in Ancient Egypt, St Martin's, 1991, p. 101.
25) Watterson, Barbara, 앞의 책,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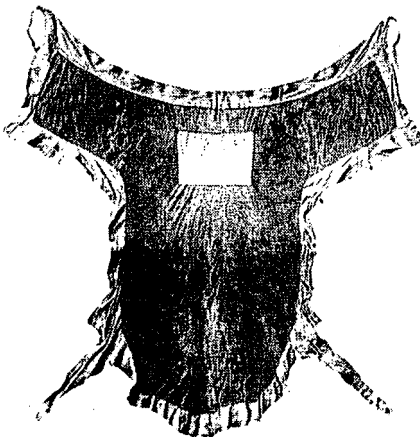


<그림 12> 소매없는 칼라시리스 구성도
(A History of Costume,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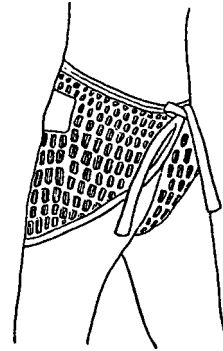
刺織된 것을 착용하였으며 일반 여성은 이것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노예로 부터 팬티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²⁶⁾

노동복은 단순 기능적이었으며, 그 예로 중심과 가장자리의 장방형만 제외하고 마름모꼴 무늬로 칼집이 넣어져 유연하고, 통기성이 우수한 가죽 로인크로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3, 14).²⁷⁾

하이크 속에 튜닉을 착용하거나, 튜닉 속에 로인크로스를 착용하는 경우와 또한 2매의 튜닉을 착용할 때 속에 착용된 의상은 속옷의 역할을 하



<그림 13> 가죽 로인크로스
(History of Costume, p. 22)



<그림 14> 요의 착용법
(History of Costume, p. 22)

였으며 유의, 로인크로스, 튜닉이 각기 한매만으로 착용될 때는 속옷과 겉옷의 역할을 함께 하였으므로²⁸⁾ 그 당시 의상 성격은 속옷 또는 겉옷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속옷도 겉옷의 발생요인과 같다고 보여진다.

2. 메소포타미아

1) 사회·문화적 배경

메소포타미아는(Mesopotamia)는 그리스어의 메소스(mesos:中間)와 포타모스(potamos:川)가 결합된 말로 강과 강 사이의 지역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양강을 가르킨다. 여기에는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시리아, 팔레스티나, 페르시아 등의 나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서아시아제국은 이민족의 정복왕조였기 때문에 일괄된 민족양식을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하여 이집트와 대바되었다.

이곳은 개방적이어서 여러 종족의 내왕 교차가 빈번하여 의복의 형태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원전 3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북부는 앗시리아인, 남부에서는 슈메르³⁰⁾가 번성했으며 특히 우르 제1왕조기³¹⁾에는 수메르인이 당

26) 青木英夫, 雄山閣, 앞의 책, p. 4.

27)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p. 21, 22.

28) Benson, Elaine,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p. 16.

29) 日本ボテイファッ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0.

30) 메소포타미아 最古의 주민의 하나, 기원전 3000년경~2004년경에 여러 도시국이 형성.

31) 우르는 슈메르인이 만든 고대도시국가. 우르 제1왕조는 기원전 2500년경에 생김.

시 최고의 문명인이었다. 수메르인들은 대개 농사나 목축을 했으며 또 세공술을 발달시켜 금이나 동의 세공품에 종교적·역사적 사건을 양각하였다. BC 1200년 이후에는 헤브라이(Hebrew), 페니키아(Phoenicia), 아시리아 등의 주요 문명들이 새로 일어났으며 BC 6세기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중동지역 전역을 정복하며 고대동방의 최후의 통일국가를 형성했으나 페르시아 전쟁의 패배로 멸망하였다. 이후 유럽의 역사적 중심은 고대동방에서 서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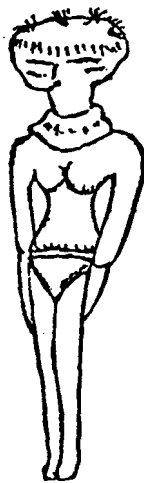
2) 속옷의 종류

수메르인은 모직물로 된 단순한 형태의 요의와 여러 층의 술이 카우나케스(kaunakes)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5).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BC 3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의 테라코타상과 릴리프가 있다. 여성속옷에 대한 최초의 형태는 오늘날 브리야프(briefs)로 언급되는 테라코타상으로써 이것은 초기 원시 의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의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틈막이를 한 벨트가 매듭지어져 있다(그림 16).^{32,33)}

요포가 생기고 넓적다리 사이에 휘감은 요포 끝을 고정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펜티가 생겨난



<그림 15> 카우나케스
(西洋服装史, p. 17)



<그림 16> 수메르의 여성상
(*Dress and Undress*, p. 13)
(女の着の歴史, p. 6)

것으로 생각된다. 릴리프에서는 한 여성은 짧은 요포를 두르고, 다른 여성은 팬티를 착용하고 있다.³⁴⁾ 헤브루 남성은 다양한 길이의 소매와 긴 길이로 된 셔츠 형태의 속옷을 착용하였다.³⁵⁾ 남성은 셔츠 한매를 착용하거나 혹은 두매를 착용하는 경우 모로 된 겉 셔츠보다 속의 린넨 셔츠가 더 길었다. 장식적인 항목인 거들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끈으로서 속옷 위에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가죽이나,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³⁶⁾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튜닉은 타이트 소매로 된 짧은 셔츠형으로 길이가 다양하였으며 하류층의 남녀에게 유일하게 이용되었다. 일부층에는 거들없이 튜닉을 사용하거나 혹은 거들과 같이 착용하였다(그림 17).³⁷⁾

상류층의 남성은 짧은 소매로 된 발끝 길이 셔츠형의 튜닉을 착용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술로 장식된 거들을 착용했으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은 장식되거나 정교하게 자수되어졌다.

32) 深井晃子 譯 앞의 책, p. 6.

33) Elizabeth Ewing,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1978, p. 11.

34) 深井晃子 譯 앞의 책, p. 6.

35) Kohler Carl, 앞의 책, p. 68.

36) Kohler Carl, 앞의 책, p. 69.

37) Kohler Carl, 앞의 책, p. 70.



<그림 17>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국민복
(*History of Costume*, p. 70)

여성의 튜닉은 소매와 옷길이가 길고 허리에 끈을 매거나 그대로 입었다. 이 튜닉은 속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함께 하거나³⁸⁾ 긴 술이 완전히 튜닉을 감싸 속옷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³⁹⁾

BC 1900년경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시리아 상인들은 어깨에서 조여지는 튜닉을 착용하였는데



<그림 18> 튜닉
(*20000 years of Fashion*, p. 52)

이때 한쪽 어깨는 노출된 채였다(그림 18).⁴⁰⁾

페르시아인은 무릎길이의 튜닉과 함께 발목길이의 바지를 입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흑해, 카스피해, 홍해지역에서는 히타이트인, 페르시아인, 인도 유럽인들이 침입한 결과 고대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개방적인 의복과 아주 대조적인 폐쇄구조의 의복이 출현하였다.⁴¹⁾

3. 크리트

1) 사회·문화적 배경

BC 3000년대에 에게해 전역에 걸쳐 금속의 가공기술이 널리 퍼지고 수공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형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하나인 크리트문명은 미노아(Minoan)문명이라고 하며 이 문명은 약 BC 3000~BC 1200년까지 존속되었고 BC 1600~BC 1400년 사이에 번성하였다.

크리트는 이집트·그리스본토·아프리카·소아시아지방을 연결하는 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해상의 상업문화를 발전시켰다. 주변지역과의 해상무역에서 크리트는 채색토기·직물·보석·무기·금속세공품 등을 수출하여 상업적인 교역에 의한 부와 번영을 이룩한 것이다.

크리트의 기후는 일년내내 온화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고 포도·올리브 등의 과실재배를 주로 하였다. 모계중심사회로, 출산과 풍요의 여신을 섬겼고 그밖에 소·뱀과 같은 동물을 숭상하였다. 발굴된 후레스코화를 통해 운동을 즐기는 대담한 기질을 엿볼 수 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에게 문명이 번영하여 그리스 문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기간의 문명은 크레타 문명(B.C 1600~B.C 1400)과 미케네문명(B.C 1400~B.C 1200)으로 개방적이고 계급의식이 없는 낙천적인 생활을 하였고, 기후가 온화하여 이들의 복장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크레타 문명은 여성 중심의 사회였으며 의상은 종교의식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뱀을 든 여신의 경우는

38) 青木英夫, 雄山閣, 앞의 책, p. 14.

39) 深井晃子 譯 앞의 책, p. 8.

40)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 52.

41) 青木英夫, 雄山閣, 앞의 책, p. 10.

화려하게 장식된 상의의 앞을 열어 유방과 배를 노출하여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다

2) 속옷의 종류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옷감을 몸에 감아입는 드레이퍼리(drapery)형이나 품이 넓은 튜닉을 입었지만 크레타의 복식은 몸에 꼭맞는 봉제된 복식형태였다. 남성은 지위나 계급에 관계없이 상체를 완전히 벗고 힙의 곡선을 나타내는 요의를 입었는데, 이것은 이집트보다 종류가 많고 재료로는 마, 울, 가죽 등이 사용되었으며 속옷의 일종이었다. 이 위에 꼴셋 역할을 하는 금속 벨트를 착용하였다. 크레타의 남성은 단순한 의복이었으나 여성옷은 몸의 윤곽선이 드러나는 투피스 형태의 옷과 스커트로 분리된 발달된 형태였다. 이것은 크레타 사회가 모계사회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높았던 것에 기인하였다. 크레타의 기후는 따뜻하였으므로 의복은 추위를 막기 위한 수단보다 육체를 부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발달하였으며 처음으로 많은 색의 속옷에서 남성과 여성 구별이 확실해졌다.⁴²⁾

크로토스스 궁전 유적에서 발굴된 뱀의 여신상(그림 19)이나 프레스코⁴³⁾의 파리젠느 등의 여신은 가슴을 드러내고 퍼진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여성은 B.C 1800년 이후에 상체에 꼭 끼는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짧고 좁은 소매가 몸판에 이어져 붙었고 유방을 완전히 노출시켰다(그림 19). 그 중에서 유방과 미드리프(midriff)가 노출되도록 앞이 전혀 여미어지지 않거나(그림 20) 유방 아래부터 허리까지의 미드리프 부분을 끈으로 묶어 내려간 형이 있었다(그림 19).

남녀 모두 허리를 극도로 가늘게 조이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꼴셋 벨트를 착용하였는데 금속으로 만든 벨트에는 장미꽃이나 기하학적인 무늬를 디자인한 금속조각관을 연결해 만든 것도 있다. 벨트를 착용했을 때 피부와의 접촉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벨트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튜닉은 짧고 좁은 소매가 몸판에 연결된 원피



<그림 19> 뱀의 여신상
(History of Costume, p. 66)



<그림 20> 블라우스
(서양복식문화사, p. 51)

스 드레스(one-piece dress)로 남녀가 종교적 의식 때 착용하였으며 튜닉은 어깨선과 옆솔기선, 치맛단에 줄무늬로 트리밍을 하고, 튜닉 전체를 파도 무늬나 꽃무늬, 기하학적 무늬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고 신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⁴⁴⁾

42) 深井晃子 譯 앞의 책, p. 13.

43) 갓 칠한 회백토에 수채로 그리는 벽화법.

44) 鄭興淑, 앞의 책, p. 52.

4. 그리스

1)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스는 그리스인이 남하 정주한 기원전 2000년경 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1200년경 아드리아해 東岸에서 도리아인이 침입하고, 이에 쫓겨선주한 그리스인들이 각지에 이주했다. 이런 그리스 여러 종족의 이동과 정주의 과정인 수백년은 암흑시대라 불리우지만, 이 시기는 그리스 사회의 그 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 그리스인은 철기를 사용해 경작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페니키아 문자를 근거로 하여 알파벳을 발명하고 제도가술도 발달시켰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다수의 폴리스⁴⁵⁾가 형성되었다. 각 폴리스에서는 왕권을 부정 또는 제한한 귀족정치가 확립되었다. 인구증가에 의한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약 200년에 걸쳐 식민시⁴⁶⁾가 건설되고, 그리스는 지중해, 흑해연안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식민시는 독립한 폴리스였다.

그리스문화는 기독교와 함께 서양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고, 그리스 복식은 대표적인 드레이퍼리형으로 로마로 연결되어 서양복식 기본형의 하나가 되었으며 어느 한 부분의 장식이나 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신체의 육체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2) 속옷의 종류

그리스인은 천의 일부를 늘어뜨리거나 주름잡는 교묘한 착장기술로써, 도릭키톤(그림 21)과 이오낙키톤(그림 22)이라는 2가지 스타일을 이용하였으며 고정핀인 피브라로 어깨에 고정시켰다. 이오낙키톤은 상완을 덮었지만 도릭키톤은 몸의 양 겨드랑이가 반쯤 트여 있어 움직임이 자유로웠다. 겨울에는 드레이프성이 있는 히마티온을 착용하였으나 어떤 경우에도 별도로 속옷은 사용되지 않았다. 의복은 멋진 기술로 드레이프나 주름이 만들어졌지만 코르셋이나 틀 등의 보



<그림 21> 도릭키톤
(20000 years of Fashion, p. 106)



<그림 22> 이오낙키톤
(History of Costume, p. 82)

조기구는 사용되지 않고 키톤 아래는 나체였다(그림 23).⁴⁷⁾

그리스 의복에는 남녀 구별이 없고 천으로서 내는 주름이 남녀의 특징있는 신체선을 보였다. 남녀 구두, 모자, 장금 등의 악세사리, 천의 색조, 주름 접는 법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의복 출현 이

45)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46) 폴리스에서의 항쟁 등에서 생겨난 새로운 폴리스.
47) 深井晃子 譯, 앞의 책,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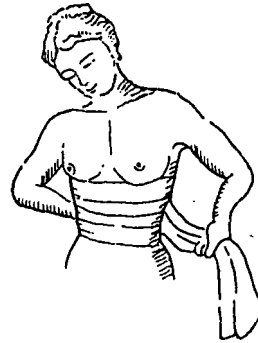


<그림 23> 키톤

(2女の下着の歴史, p. 14)

래 이집트나 오리엔트에서는 性的 차별보다 사회적 차별쪽이 강조되었다. 크레타인의 남녀 의복에 시작되었던 성적 분화는 그리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리스 조각은 여성다움을 표현하지 않아 여성상은 가슴부풀림을 없애고 허리를 감추고 있었다. 미케네나 크레타의 작장법에서 과시되었던 속옷은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가늘게 하고 엉덩이를 부풀렸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코르셋이나 크라노린을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인 속옷이었다.

의상 속에 다른 속옷을 입지 않아 인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나 문헌상에는 다른 속옷류를 밝히고 있다. 처음 사용된 아포데슴(apodesme)은 (그림 24)⁴⁸⁾ 유방을 지지하기 위해 천으로 된 작은 띠로 언더-바스트를 감아올렸다. 이것은 유방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걸을때 유방이 움직이지 않도록 사용되었다. 또한 소녀들은 가슴에서 허리까지 감은 가늘고 붉은색 리본인 아나마스카리스텔(anamaskhalister)이나 마스토데톤(mastodeton)⁴⁹⁾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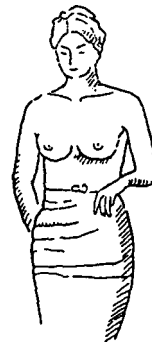


<그림 24> 아포데슴

(Body Fashion Book, p. 111)

이 가슴밴드인 마스토데톤은 오늘날 처럼 가슴의 곡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평평하게 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가슴 주위에 착용되었으며 마스토디(mastodes)란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⁵⁰⁾ 여성은 가는 띠 조나(zona)로서(그림 25)⁵¹⁾ 복부를 눌러 평평하게 하거나 키톤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⁵²⁾

그리스의 남녀가 입은 튜닉은 T자형의 단순한 형태로 구성방법은 두 장의 천을 맞대어 어깨와 양옆슬기를 꿰매었다. 남성의 튜닉은 엉덩이나



<그림 25> 조나

(Body Fashion Book, p. 111)

48)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ン協會, 앞의 책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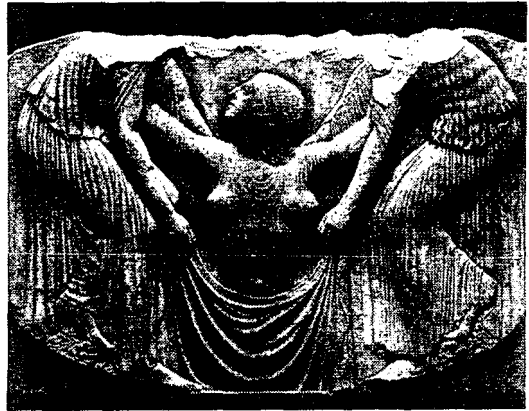
49) 青木英夫, 雄山閣, 앞의 책 p. 13.

50) Elizabeth Ewing, 앞의 책, p. 16.

51)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ン協會, 앞의 책, p. 111.

52) 青木英夫, 雄山閣, 앞의 책, p. 13.

넓적다리 길이로 짧았고 허리에 끈을 매어입었으나 여성의 튜닉은 길이가 발목길이이고 속옷의 용도로 입었으며 허리에 벨트를 하지 않았다.⁵³⁾ 이것은 예리한 피브라로 고정하는 대신에 어깨있는 곳에서 꿰매 맞추었으며 실제로 키튼처럼 팔이나 손에 주의를 할 필요없이,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주름을 잡고 허리를 벨트로 묶었다. 튜닉을 입음으로써 고전적 그리스의 의복을 특징지었던 나체와 여유의 공존은 사라지고 여성의 몸은 천 아래에 감추어졌다. 여성은 히마티온 속에 2매의麻로 된 튜닉을 입었는데(그림 26), 이것은 이후 수세기 사이에 슈미즈와 언더-스커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새로운 속옷인 속튜닉이었다. 얇고 주름잡힌 속 튜닉은 슈미즈의 초기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그림 27).^{54,55)}



<그림 27> 속 튜닉
(Unmentionables, p. 19)
(History of Costume, p. 81)

5. 에트루리아 및 로마

1) 사회·문화적 배경

에트루리아인은 B. C 9세기 말까지 소 아시아



<그림 26> 麻튜닉
(女の下着の歴史, p. 27)

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해왔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크리타에서 문화유산을 가져왔으며 로마인들은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에트루리아는 모권사회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아 여자 복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나체로 다니기를 좋아했고, 의복에서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는 크리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해양문화의 공통점이다.

콘스탄티누스 제왕이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플로 개칭하고 천도했던 기원전 330년까지의 830년간에 걸친 것이 로마 문명이다. 이것은 공화정 로마시대와 제정 로마시대로 대별할 수 있다. 로마는 고대 지중해의 문명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북방, 유럽 대륙으로 전하기에 좋은 위치이며 이탈리아 반도는 서방으로 개방되고, 육지는 연속한 구릉지대로 농경에 적합하며 토지가 좁고 산악이 많은 그리스의 자연과는 대조적이었으며 그리스 문화는 창조적이고 내성적이거나 로마는 모방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리스는 철학이나 미술, 문학에 뛰어나고, 로마는 법률, 정치, 군사, 토목, 건

53) Caroly G. Bradey, *Westem World Costume*, Prentice Hall, p. 32.

54) Payne, Blanche, 앞의 책 p. 81.

55) Benson, Elaine, John, Esten, 앞의 책 pp. 15, 16.

축에 뛰어났다.

기원전 6세기말, 에트루리아 왕이 추방되고 로마는 공화정(BC 509~BC 30)으로 되었다. 기원전 3세기초에는 평민이 귀족과 법률상 평등의 권리를 얻는 등 로마는 점차 팽창하고, 포에니전쟁의 결과, 로마공화국은 처음으로 이탈리아 이외에 영토를 가졌다. 이 승리에 의해 정치상에서 로마화, 문화상에서는 헬레니즘화되고, 여기서 동서융합의 문화가 이루어졌다. 헬레니즘문화는 로마사회에 침투하여 카에살(시이저)는 천하를 평정하고, 효과적인 정치시책을 행했으며 악티움해전 이후 로마는 제정(BC 30~AD 476)이 되었다.

로마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를 로마화하고 현실적·실용적인 문화를 이룬 것이었으며, 로마는 지중해 중심인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위의 여러 민족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국제적인 문물의 교류가 일찍부터 행해졌다.

2) 속옷의 종류

에트루리아의 복식은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서아시아 복식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을 로마복식에 이식시켰다. 의복은 개방식이었으며, 나체인 경우도 있었지만 의복을 입을 때에는 비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솔을 피부에 드래이프시켜 감아 올리거나, 속옷으로써 입혀지는 경향이 있었던 드레스 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남녀 모두 좁고 긴 띠의 형태로 된 요의를 착용하며 튜닉은 형태가 다양하였다. 초기에는 몸에 넉넉하게 맞는 실루엣에다 허리띠를 한 두 번 감아 댔는데, 후기엔 간단한 T자형의 원피스 드레스 형태가 되었으며 특히 소매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즉 짧은 기모노 소매와 팔꿈치까지 오는 반소매 또는 팔목까지 오는 좁고 긴 소매 등이다. 또한 둥근 목둘레선에다 뒷 중심선에 트임이 있고 벨트없이 상체는 꼭 맞고 하체는 플레어(flare)로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는 것도 있었다(그림 29).

튜닉의 재료는 얇은 린넨을 사용하여 몸의 곡선을 드러내고 신체가 비쳐 다른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어 튜닉이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튜닉은 넓적다리·무릎·종아리·발목길이었고(그림



<그림 28> 튜닉

(History of Costume, p.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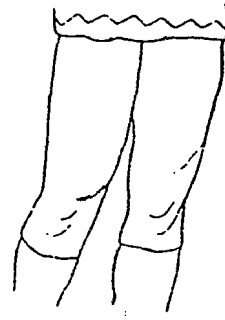
<그림 29> 통이 넓은 튜닉

(서양복식문화, p. 79)

29, 30) 여성은 남성보다 길게 착용하였으며 튜닉을 두매 겹쳐 입어 속에 입은 튜닉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긴 옷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착용되었으며, 초기엔 높은 계급을 상징하기 위해 클라비스(clavis)라는 수직선 장식을 했는데, 후기엔 이것을 순수한 장식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클라비스 외에도 소매끝, 옆솔기, 아랫단 등을 다른 색상의 천으로 장식하였다. 에트루리아 여성도



<그림 30> 튜닉
(서양복식문화, p. 77)



<그림 31> 튜닉과 페미날리아
(History of Costume, p. 102)

크리트 여성처럼 종모양(bell-shape)의 롱 스커트를 입고 이 외에 종아리나 무릎까지 오고 주름이 풍성한 스커트도 착용하였다. 여성들은 롱 스커트 위에 튜닉처럼 짧은 기모노 소매가 달려 있는 블라우스를 입었다.

로마에서는 영도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외투와 함께 속옷이 생겨났다. 처음의 튜닉 소매는 짧았으나 점차 긴 소매로 되었다(그림 34). 공화정시대에 남자들은 튜닉이나 토가 속에 품위 유지를 위해 수부리가쿨룸(subligaculum)으로 불린 요의를 필요로 하였는데, 제국시대에는 이 요의에 장식적인 자수를 놓아 노예, 연극배우, 무용가, 검투사 등 여러 계층에서 입었다. 이와 비슷한 요의인 리시니움(licinium)은 로마인의 운동복으로 린넨으로 된 긴 천을 다리 사이를 지나 그 끝을 한데 묶는 형태로 출지 않는 날에는 이 옷만 입고 운동경기를 하였다.

로마 남자들은 관례적으로 겉의 튜닉보다 짧고 좁은 언더튜닉인 수부쿨라(subucula)를 입었는데 이것은 모직물로 만들어졌다.⁵⁶⁾ 아우구스투스는 네개의 튜닉과 한개의 수부쿨라를 입어 속의 튜닉과 수부쿨라가 속옷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무릎까지 오는 튜닉 아래에는 대퇴골 부분을 덮는 페미날리아(feminalia)를 착용하였다(그림 31).⁵⁷⁾ 오랫동안 로마인은 바지나 다리싸개를 야만의 상징으로써 거부했으나 추운 북부기



<그림 32> 튜닉 2세기초
(History of Costume, p. 106)

후 때문에 군인뿐만 아니라 장군과 황제도 바지를 착용하였다(그림 32).

여성들은 팔라 속에 스톨라를 착용하였는데 이오닉 키톤의 소매처럼 어깨부터 손목까지 솔기선이 있고 솔기선을 따라 주름을 잡아 소매 모양을 만들며 소매의 주름잡은 솔기선을 피블라로 고정시켰다. 길이는 손목 또는 팔꿈치까지 오는 소매,

56) 白英子, 柳孝順,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p. 113.

57) Payne, Blanche, 앞의책, p. 102.

짧은 소매 등이 있고 소매통도 넓은 것과 좁은 것 등 다양하며, 소매를 따로 재단해서 몸판에 붙이거나 소매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35). 발목 길어인 이 원피스 드레스는 허리띠를 유방 밑에 한 번 두르거나 유방 밑과 힙 근처에 두 번 두르기도 하였다. 초기엔 흰색의 모를 사용했으나 후기엔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린넨이나 면, 견으로 만들고 금실로 수를 놓기도 하였다.

여성의 다른 속옷으로는 아래에 요의를 착용하고 위에는 긴 마직천으로 된 띠로써 유방을 감아매는 스트로피움(strophium)(그림 33)이 착용되었다.

이것은 가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의상으로 브라지어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 한벌의 속옷은 공중목욕탕 스톨라 속에 입거나 운동할 때 입었다. 그리스의 아포데숨은 로마에서는 타에니아(taenia)라 불리고 유방의 아래를 감았으며 소녀들은 넓은 밴드인 파시아(fascia)로써 유방을 덮어 유방의 발달을 저지하였다. 소녀의 가슴이 발달하면 가족의 마밀라레(mamillare)로 억눌렀는데 이것은 표준보다 큰 유방을 가진 젊은 여성에 한정되었다.⁵⁸⁾

허리에 두른 그리스의 조나는 로마에서는 코르셋에 가까운 형으로 늘어났으며 그리스에서 가져



<그림 33> 스트로피움과 요의 A. D 3~4
(History of Costume, p. 102)
(20000 years of Fashion, p. 122)



<그림 34> 튜닉
(History of Costume, p. 100)

온 세스타스(cestus)와 함께 이용되었다.⁵⁹⁾ 세스타스는 언더·바스트에서 넓적다리 밑부분을 덮었으며 성인 여성은 가슴아래에 이 벨트를 매고 소녀는 허리에 감았다. 속 튜닉 위에 카스툴라(castula)라는 언더·스커트를 입고 제일 외측에 팔라(palla)를 입었다.

남성은 나체로 수영하는 일이 많았으며 로마시대의 바키니는 체조선수복이었으며 그리스와 같이 로마인의 수영복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들 스포츠복이나 소녀복은 창부에 의해 모방되었다.

로마인은 집안에서 튜니카(tunica, tunic의 라틴명)라는 속옷을 입고 지냈으므로⁶⁰⁾ 실제 튜니카는 실내복으로 이용되었다(그림 36). 이 튜니카는 셔츠의 일종으로 상당히 넓게 재단되었으며, 진동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혔으며 무릎 아래 길이였으며 튜니카에 소매가 있는 경우에는 팔꿈치 길이였다. 거들(girdle)이 튜니카와 함께 착용되었으며 튜니카는 때때로 너무 넓어 펼쳤을 때 그것은 양옆에서 팔뚝(前腕)의 중간까지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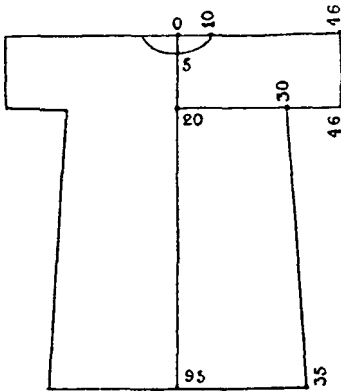
58) 小川安明, 服飾遷の原則, 文化出版局, pp. 154-170.

59) 青木英夫, 雄山閣, 앞의 책, p. 20.

60) 파울 프리샤우어, 이윤기譯, 世界風俗社 上, p. 212.



<그림 35> 스토라
(History of Costume, p. 112)



<그림 36> 튜니카 구성도
(A History of Costume, p. 196)

이때 소매는 짧았으며 소매 윗부분은 넓고 손목쪽으로 좁아졌다. 이후 튜니카는 발끝 길이 정

도로 길어져서 튜니카 탈라리스(tunica talaris, tularis)라고 불렸으며 모 외에 면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엔 남성의 결혼복이었으나 점차 일반화되었다. 긴 소매로 된 튜니카 마니카타(tunica manicata)는 이전에는 성직자가 착용했으며, 배우의 걸옷(wardrobe)으로도 이용되었다가 후기 제국시대에 일반화되었다.

토가나 튜니카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착용자의 지위나 직업을 나타내기 위해 클라비를 의복의 앞과 뒤에 부착하며 어깨를 넘어 수직으로 발끝까지 늘어뜨려졌다. 줄무늬 넓이에 따라서 넓은 줄무늬로 된 튜니카 라티클라비아(tunica lativclavia)는 원로원에서 사용했으며 좁은 줄무늬로 된 튜니카 안가스티클라비아(tunica angustivclavia)는 기사계급에 의해 착용되었다.⁶¹⁾ 이 튜니카는 거들없이 착용했으며 종려가지와 함께 금으로 자수되어 튜니카 팔마타(tunica palmata)라고 불리었으며 이것은 승리한 장군이 승리 축하때나 다신교시기에 로마 몇쟁이들이 무릎길이나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여러 개의 튜닉들이 동시에 착용될 때 항상 속 튜닉은 겉 튜닉보다 밀접하게 맞았으며 2매의 튜닉이 착용될 때에는 속 튜닉인 수블클라와 겉 튜닉인 튜니카 엑스티어둠(tunica exteriorum)을 착용했으며 후자는 점차 길어져 A.D 100년경에 발목길이에 이르자 케러케러(caracalla)로 불려지며 A.D 200년경에 일반화되었다.⁶²⁾ 로마여성 은 튜니카와 신체에 밀접하게 맞는 튜니카인테리어와 짧은 카미시아(camisia) 즉 슈미즈를 입었다.^{63,64)} 피부 가까이 착용된 튜니카인테리어(tunica interior)는⁶⁵⁾ 진동을 제외하고 사방이 막혔으며 짧은 소매로 된 이 의복은 전체 넓이가 똑같았으며 발끝 길이였다. 이것은 여성의 실내복으로써 처음에는 모를 후에는 면, 견을, 제국시대의 후기에는 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것은 길고 풍성하며 긴 트레인을 가지고 때때로 거들이 있거나 혹은 없이 착용되었으며 걸쇠

61) Kohler Carl, 앞의 책, p. 116.
 62)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1986, p. 40.
 63) 日本ボテイフア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0.
 64) Payne, Blanche, 앞의 책, p. 113.
 65) intima, interala, indusium으로도 불리워졌다.

나 단추로서 어깨에 장식되었다. 튜니카인테리어 위에 스톨라가 착용될 때는 이것 아래의 의상과 똑같이 재단되어졌으나, 유일한 차이점은 속옷에 소매가 없다면 스톨라는 상완부를 덮는 넓거나 좁은 소매를 가졌으며 특히 이 경우 스톨라를 입기 전에 로마여성은 보통 가슴을 올리기 위해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넓은 밴드를 착용하였다.⁶⁶⁾

고대로마의 속옷이었던 튜니카는 겉옷이었던 토가가 의례화된 최고위치에서 형식화되고 상징화되어 퇴화되어감에 따라 겉옷화를 진행시켜 결국 토가를 대신하여 로마의 국민적인 복장으로서 장식적인 요소가 가해져 완전히 겉옷화 되었다.⁶⁷⁾

IV. 결 론

속옷은 겉옷의 아래에 착용되는 것을 총칭하며 그 기능은 추위로 부터 신체보호, 의상형태의 유지, 청결함, 선정적인 용도 및 계층구별 등이다.

고대에 이용된 속옷의 종류 및 착용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에서 하이크 속에 튜닉이나 요의를 착용하거나, 또한 튜닉 속에 로인 크로스나 언더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와 또한 2매의 튜닉을 착용할 때 속에 착용된 의복은 속옷의 역할을 하였으며 요의, 튜닉, 칼라시리스가 각기 한 매만으로 신체에 착용될 때는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함께 하였다.

속옷의 최초 형태는 양의 가죽으로 된 수메리아의 테라코타상으로 이것은 오늘날 브리이프의 원조로 볼 수 있다.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튜닉에서 상류층 남성은 짧은 소매이나 여성은 긴 소매였으며 속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거나 긴 솔이 튜닉을 감싸 튜닉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크레타 남녀가 착용한 콜셋 벨트는 오늘날 콜셋의 원조로 볼 수 있으며 여성 스커트의 테는 여성 속옷의 원형으로 후의 베르쥬가르맹, 크리노린, 파니에의 모습으로 속옷의 역사상에 나타났다.

그리스인은 키톤 속에 속옷을 입지 않아 키톤

은 겉옷과 속옷의 성격을 함께 가졌다. 유방을 지탱하기 위한 아프테슴과 복부를 평평하게 하는 조나는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키톤을 채우기 위하여 조나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가슴 밴드인 마스토데톤은 가슴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비슷한 의미로 마스토디가 이용되었다. 여성이 튜닉을 두매 접찰 때 속의 한매는 속 튜닉의 역할을 하였다.

에트투리아인은 요의, 튜닉, 롱스커트, 블라우스 속에 의복을 입지 않아 이 의상들도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하였고 여성은 튜닉을 두매 겹쳐 속의 한매가 속옷 역할을 하였다.

로마여성은 팔라 속에 스톨라를 착용하고 스톨라 속에는 튜니카인테리어를 착용하였다. 스토로피움은 가슴을 받쳐주는 파운데이션 의상으로 브래지어의 시초로 볼 수 있으며 이것과 아래의 요의는 한벌로써 운동복으로 이용되었다. 여성은 아포테슴의 변형인 타에니아로서 유방의 아래를 감았으며 언더스커트인 카스틀라를 착용하였다. 소녀는 유방의 발달을 저지하기 위해 폭넓은 밴드인 파시아를 이용하였고 큰 유방을 가진 젊은 여성은 가죽으로 된 마릴라레를 착용하였다. 남성은 짧고 좁은 언더튜닉인 수부클라를 착용하고 튜닉 아래에 페니날리아를 착용하였으며 공화정 시대에는 튜닉 속에 풀유 유지를 위해 요의인 수부리칼쿨롬을 착용하였다. 다른 요의 형태인 리시니움은 로마인의 운동복으로 이용되었다.

튜니카는 발끝 길이인 튜니카 탈라리스, 긴 소매로 된 튜니카 마니카타, 줄무늬 넓이에 따라 튜니카 라티클리비아와 튜니카 안가스티클리비아, 승리한 장군이 착용한 튜니카 팔마타 등 다양하였다. 속옷이었던 튜니카는 겉옷이었던 토가가 의례화 된 최고 위치에서 퇴화되어감에 토가를 대신하여 로마의 국민적인 복장으로서 겉옷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대에서는 하이크 속에 로인크로스, 튜닉을 착용하거나, 또한 2매의 튜닉을 착용하는 경우와 튜닉 속에 로인크로스를 착용하거나 팔라 속에 스톨라를 착용하는 경우 등은 속에 착용한 것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고 로인크로스, 튜

66) Kohler Carl, 앞의 책, p. 117.

67) 小川安朗, 앞의 책, p. 154.

닉, 칼라시리스, 키톤 등이 각기 한매만으로 신체에 착용될 때는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함께 하였다. 그러므로 이 당시 의상 성격은 속옷 또는 겉옷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속옷도 겉옷의 발생요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白英子, 柳孝順,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p. 113, 1989.
2.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pp. 12-93, 1995.
3. 鄭興淑, 서양복식문화, 敎文社, pp. 4-115, 1997.
4. 車河淳, 西洋史概論, 探求堂, p. 24, 1984.
5. 파울 프리샤우어, 이윤기譯, 世界風俗社 上, p. 78, 79, 212, 1995.
6. API 아문 고대이집트 문명, p. 129.
7. 小川安朗, 服飾效本, 光生館, pp. 7-12, 1990.
8. 小川安朗, 服飾 遷の原則, 文化出版局, pp. 154-170, 1981.
9. 深井晃子 譯 セシル・サンローラン, 女の下着の歴史, 文化出版局, pp. 5-41, 1981.
10.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p. 110-120.
11. 田中千代, 服飾事典, 同文書院, p. 356, 1969.
12. 青木英夫, 下着의 流行史, 雄山閣, p. 13, 1991.
13. 青木英夫, 西洋男子服 流行史, 源流社, pp. 13-40, 1994.
14. 村上憲司, 西洋服裝史, 創元社, pp. 6-52, 1986.
15. Benson, Elaine,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p. 16, 1996.
16. Carolyn G. Bradey, *Westen World Costume*, Prentice Hall, p. 32, 1954.
17.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261, 1992.
18. Elizabeth Ewing, *Dress and Undress*, Drama, pp. 11-177, 1978.
19. Frans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pp. 19-133, 1987.
20. Garland Madge, *The Changing from Fashion*, p. 3, 1970.
21. Ko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Dover, 68-71, p. 116, 1963.
22.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p. 16, 23, 40, 1986.
23.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pp. 7-117, 1965.
24. Picken, Mary, Brooks, *The Fashion Dictionary*, Funk & Wagnalls, p. 17, 238, 1987.
25.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pp. 5-7, 1996.
26. Tarrant, Naomi, *The Development of Costume*, pp. 18-32, 1996.
27. Watterson, Barbara, *Women in Ancient Egypt*, St Martin's, pp. 47-128, 1991.